

# 남북 통일농구, 단일팀 디딤돌 '관심'

오늘 남북 혼합경기 · 내일 친선경기 진행  
아시안게임서 여자 농구 남북 단일팀 합의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통일농구경기에 참가하는 허재 감독(앞 오른쪽)을 비롯한 선수단과 기자단이 3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군용 수송기(기종 C130H) 2대에 나눠 타고 출발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농구 남북 단일팀을 꾸리기로 해 남북 통일농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과 남녀 선수단 100명은 3일 오전 10시 삼남공항에서 군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 평양으로 떠났다.

이번 남북 통일농구에서는 4일 남북 혼합경기가 열리고, 5일 친선경기가 진행된다. 혼합경기는 남북 선수들을 섞어 각각 '평화팀', '번영팀'으로 나눠 남북 감독이 한 팀씩 맡아 경기한다. 친선경기는 청팀(남측)과 홍팀(북측)으로 진행한다. 눈길어 풀리는 것은 혼합경기에서 여자 팀의 모습이다. 아시안게임

단일팀 때문이다.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 구성 분위기가 조성됐다. 통일농구 경험이 있는 농구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최근 아시안선수권대회에서 기량을 어느정도 확인한 여자 농구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에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서 열린 남북 체육 관계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아시안게임 조직위의 4자회의에서 여자 농구를 비롯해 카누, 조정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농구는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해 북측 여자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는 지리가 될 전망이다.

방영 대한농구협회장은 평양으로 떠나기 전 "아시안게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여자 대표팀은 단일팀 협상 문제가 있다. 여자 농구팀 단일팀 구성에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경험했지만, 단일팀 구성이 쉽지 않다. 어떻게 극복해 더 강한 팀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년 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농구가 금메달을 땀는데 다시 한 번 우승하고픈 꿈을 가지고 있다"고 커다란 비망을 드러냈다.

이문규 여자 대표팀 감독은 "아시안게임 단일팀 문제가 대두되면 여러 선수들을 평가해왔다.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2, 3명 정도 있다. 기량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다. 우리 쪽 선수들이 합류하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 회장과 이 감독은 통일농구와 여자 대표팀 단일팀 구성이 나아가 통일의 발판이 되길 바랐다.

이 감독은 "스포츠 발전도 있지만,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통일에 앞장서는 길"이라고 말했다.

방 회장은 "통일농구가 연례행사로 이뤄져 농구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통일농구대회 남자선수단 라틀리프 선수가 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발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남북 통일농구 위해 평양 떠나는 귀화선수 라틀리프 "색다른 경험"

남북 통일농구를 위해 평양으로 떠나는 남녀 농구대표팀에 한층 특별한 경험을 할 선수가 있다.

바로 올해 1월 체육 분야 우수 인재 자격으로 특별 귀화한 리카르도 라틀리프(29·울산 현대모비스)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과 남녀 선수단 100명은 3일 오전 10시 삼남공항에서 군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 평양으로 떠났다. 남자 대표팀으로 활약 중인 라틀리프도 함께였다.

남북 통일농구가 열리는 것은 1999년 9월과 12월 2003년에 이어 역대 4번째다. 귀화한 외국인 선수가 통일농구를 통해 북한에서 뛰는 것은 라틀리프가 처음이다.

라틀리프는 평양으로 떠나기 전 "색다른 경험이라 어떤 감정인지 표현하기 힘들다. 나라를 대표해 가는 것이라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농구 팬 뿐 아니라 전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관심을 온 몸으로 느낀다고 전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도 라틀리프의 북한 방문에 관심을 끌 듯하다.

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질문에 라틀리프는 "기도해주고 있다"며 웃었다.

평양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 단지 라틀리프에게만 설레는 경험은 아니다. 남녀 대표팀 주장들

라고 있는 박찬희(31·인천 전자랜드)와 임영희(38·아산 우리은행)도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박찬희는 "남북 교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구가 스포츠를 대표해 좋은 취지로 가게 됐다. 경기를 열심히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서 사진은 찍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고 많이 담고 싶다. 막상 가면 많이 신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영희는 "북한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도 하고, 좋은 계기로 저희가 국가를 대표해 남북 대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영광스럽고 설레는 마음이 크다"며 미소를 지었다.

북한 남자 농구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국제대회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허재 남자 대표팀 감독도 전력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한 상황.

박찬희도 "아직 북한 선수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같은 종목이니 경기하다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북한 여자 농구는 지난해 아시안선수권대회에 나서는 등 최근까지 국제대회에 나섰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농구 남북 단일팀 구성도 합의된 상태다.

임영희는 "혼합경기를 하면서 북한 선수들과 많이 대화할 수 있다. 손발도 맞춰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뉴스스

## '지연술 논란' 日축구, 벨기에 몰아세우며 명예 회복

FIFA랭킹 3위 상대 먼저 2골 대등하게 싸워



일본 축구가 조별리그에서 소극적인 지연술로 구실에 올랐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위 벨기에를 버팀 끝까지 몰아세우며 명예를 회복했다. 일본은 3일 오전 3시(한국시간)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린 벨기에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16강전에서 후반에 먼저 2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았지만 뒷심 부족을 드러내며 2-3으로 역전패했다.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8강 문턱을

넘는 것 같지만 유럽 특유의 높이와 힘을 극복하지 못했다. 버팀 끝에 몰렸던 벨기에의 침착함과 마지막 역습 한 방이 인상 깊은 경기였다. 일본의 FIFA 랭킹은 61위다. 월드컵에서 변방으로 취급받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6강에 올랐지만 벨기에에 너무 버거운 상대였다. 많은 도박사와 전문가가 벨기에의 일방적인 승리를 전망했다. 하지만 일본은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도. 하트 대등하게 맞섰다.

뉴스스

16강 진출 여부가 걸린 폴란드와의 H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 소극적인 운영으로 비판받았기에 일본의 이날 모습은 더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일본은 후반 막판 폴란드의 0-1로 뒤졌지만 세네갈 콜롬비아의 경기 상황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경기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

콜롬비아가 세네갈에 앞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16강 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H조에서 일본과 세네갈은 1승1무1패(승점 4)로 동률을 기록했다. 득실차(0), 다득점(4골), 승자승(맞대결 2-2 무승부)까지 같았다.

결국 페어플레이 점수를 통해 일본이 16강에 올랐다. 일본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경고 4회, 세네갈은 6회 받았다.

하지만 벨기에를 상대로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면서 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인 개리 네빌 해설위원은 "이번 대회 토너먼트에서 본 경기 중 최고였다"고 했고, 은퇴한 네덜란드 국가대표 공격수 페트릭 클루이베르트는 "일본의 전반은 매우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뉴스스

## "공정하지 못한 일본팀 징계하라"...세네갈, FIFA에 항의

"페어플레이 점수제 문제 생겨"

세네갈축구협회가 2018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6강 진출을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경기 운영을 한 일본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BBC는 2일(한국시간) "세네갈축구협회가 '일본처럼 공정하지 못한 경기를 하는 팀에 징계를 줘야 하고 페어플레이 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일본-폴란드의 H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보여준 일본의 경기운영을 비판한 것이다. 일본은 이 경기에서 폴란드에 0-1로 뒤졌지만 세네갈 콜롬비아의 경기 상황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콜롬비아가 세네갈에 앞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16강 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H조에서 일본과 세네갈은 1승1무1패(승점 4)로 동률을 기록했다. 득실차(0), 다득점(4골), 승자승(맞대결 2-2 무승부)까지 같았다.

결국 페어플레이 점수를 통해 일본이 16강에 올랐다. 일본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경고 4회, 세네갈은 6회 받았다. 이를 두고 일본이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경기 후반 고의적으로 소극적인 경기를 펼친 것은 축구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네갈축구협회는 "일본처럼 경기하는 팀에 징계를 줘야 한다. 이에 맞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롭게 도입한 페어플레이 점수제가 오히려 문제를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뉴스스

## '박태환 불참' 국가대표 추가 선수 선발 안한다

안세현·김서영 출전 확정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안세현(23·SK텔레콤)과 김서영(24·경북체육회)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5개 종목, 4개 종목에 출전해 메달에 도전한다. 대한수영연맹은 오는 8월 개최되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하계아시안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단의 세부 출전 종목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 수영의 역사를 새로 쓴 안세현은 주종목인 접영 100m, 200m에 접영 50m까지 총 3개 종목에 나선다.

여기에 단체전인 혼계영 400m와 혼성 혼계영 400m 여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혼성 혼계영 400m가 아시안게임에서 치러지는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한국은 접영 구간에 여자 선수인 안세현을 배치하기로 했다.

안세현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00m와 200m에 출전해 모두 결승에 올랐고 세 차례나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접영 100m에서 5위, 200m에서 4위에 오르며 한국 여자 수영 선수로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개인혼영 200m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개인혼영 종목 결승에 진출해 6위에 오른 김서영은 메달에 도전장을 던진다.

김서영도 단체전인 계영 400m와 800m 영자로 나선다.

박태환(29·인천시청)이 아시안게임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이에 따른 추가 선수 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스



## '이집트 왕자' 살라, 리버풀과 5년 연장 계약

'이집트 왕자' 모하메드 살라(26)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과 장기계약을 맺었다.

리버풀은 2일(한국시간) 살라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살라는 2023년까지 리버풀에 머문다. 바젤(스위스), 첼시(잉글랜드), 피오렌티나 AS 로마(이탈리아) 등을 거친 살라는 2017~2018시즌을 앞두고 리버풀에 입성했다.

살라는 1년 만에 리버풀을 넘어 EPL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52경기에 44골이라는 놀라운 득점

력을 뽐냈다. EPL에서만 32골을 넣으며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덕분에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FWA) 잉글랜드 축구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양분한 발롱도르의 유력 후보로도 거론된다.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이번 계약은 리버풀에 대한 살라의 신뢰와 살리를 향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며 반겼다.